

한국 미술의 역사(歷史)를 기록하는 살아있는 미술사(美術師)

김달진 관장

아키비스트(archivist)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수집, 보관, 보존, 관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각종 미술 사료를 모으는 데 힘을 쏟은 김달진 관장은 현대의 아키비스트라 불릴 만하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관장이자,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의 편집인이며, 1인 방송까지 진출한 팔방미인, 김달진 관장을 만났다.

글 황혜민 사진 김희진

Q. 방대한 미술 사료를 모으고 관리하기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서양의 명화나 유명한 그림들이 잡지에 컬러 화보로 소개된 것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그런 컬러 화보나 명화가 귀했거든요.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작 국내 최고 작가들이었던 이상범, 이중섭, 박수근 등의 자료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 보자는 마음으로 수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니 직장으로 월간 전시계사, 국립현대미술관, 가나화랑·가나아트센터를 거치게 됐고, 현재에 이르러 '김달진미술연구소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Q. 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그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처음에는 제 만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1980년대에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 중 결정적이었던 게 1985년에 쓴 '관람객은 속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작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여러 가지 오류, 오기를 범하고 있어서 관람객 입장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는 일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렇게 자료들을 재구성, 재가공해서 세상에 내보내니 그 또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수집에서 멈췄다면 발견하거나 세상에 알리지 못했을 가치들을 재발굴, 재생산하게 된 거죠. 그게 나중에는 스스로 사명감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요.

Q. 최근에는 '달진티비'라는 유튜브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요.

저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하기보다는 하나, 하나 쌓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에 필요한 부분을 쌓고, 또 다른 부분을 쌓으면서 그 영역을 넓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분석하고 통계를 내고 인명사전이나 전시회 등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일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 잡지를 창간하고, 박물관을 개관하고, 다양한 것들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유튜브도 제 일을 확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온라인 매체가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이런 기록물을 쌓아두면 또 그게 온라인 아카이브가 되는 것이니까요. 아는 만큼 누린다는 말이 있듯이, 끊임없이 배우고 그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살찌워가는 것이지요.

Q. 관장님만의 건강 관리법이나 건강 유지 비법이 있으신지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질병과 함께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고, 배낭이 없었던 시절에는 미술 자료를 수집한다고 어깨가 빠질 정도 많은 자료를 양손에 매고 지고 다녔었죠. 그때의 오랜 스트레스가 쌓인 탓인지 2011년과 2015년에 두 차례 목 척추 종양 수술을 크게 받았습다. 원래는 건강 유지를 위해 매일 아침 헬스장을 갔었는데요,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헬스장을 가는 것 대신 매일 아침 야외에



서 30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만으로는 운동량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1년 이상 쉬었던 헬스장을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Q. 관장님이 꿈꾸는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우리 박물관에 희귀한 아날로그 자료가 많다 보니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 때 대여 요청을 해온다거나 논문을 쓰는 연구자, 외국에서 찾아오는 연구자들의 열람 요청이 이어집니다. 자료보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열람 서비스 공간의 부족 문제, 자료의 디지털화 해야 하는 일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끝이 없지요. 앞으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여러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후손에게 자료를 제대로 남겨주기 위한 각종 업무와 단행본 발간 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 몇 년 후의 일이겠지만 수집에서부터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한 자전적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묶어내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MEDICHECK